

상남동에서 밤이 깊어질수록 노래방 간판마다 불이 켜지고, 단체 손님이 한 팀, 두 팀 들어온다. 마이크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높다. MR 위에 목소리가 얇게 얹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소규모 라이브 바처럼 가수의 호흡과 감정이 전면으로 나오는 소리. 이 감각을 제대로 구현하면 손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추천도 늘어난다. 반대로 소리가 얇거나 반주와 분리되지 않으면 노래가 익숙한 곡이어도 재미가 반감된다. 현장에서 오가며 세팅을 도와온 입장에서, 상남동 가라오케가 라이브 느낌을 뽐아내려면 무엇보다 손봐야 하는 지, 마이크에서 룸 튜닝까지 단계를 나눠 설명한다. 내용은 창원 가라오케 업장 전반에 적용되지만, 특히 방음과 구조가 다양한 상남동, 용호동, 중앙동, 명곡동, 가음동 같은 동네에서 부딪친 현실과 한계를 바탕으로 했다.

라이브 같은 소리를 정의하는 기준

라이브 느낌을 만들겠다고 할 때 종종 반주를 크게, 리버브를 많이 쓰면 된다고 오해한다. 이럴수록 목소리는 뒤로 밀리고, 가수의 아티큘레이션이 뭉개진다. 라이브처럼 들리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 첫째, 목소리의 다이내믹이 살아 있어야 한다. 작은 소리는 섬세하게, 큰 소리는 여유 있게 받아주는 헤드룸이 필요하다. 둘째, MR과 보컬이 서로 다른 공간감을 가져야 한다. 같은 리버브 안에 다 집어넣으면 합주실처럼 섞여 버린다. 셋째, 공간의 울림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이브는 무대의 잔향이 더해지는 느낌이지, 방이 울려서 번지는 게 아니다.

이 기준을 수치로 옮겨보면, 보컬 채널에서 피크가 0 dBFS에 닿지 않도록 평균 RMS 기준으로 MR 대비 3에서 6 dB 정도 앞에 세운다. 룸 울림은 RT60을 0.25에서 0.35초 범위로 관리하면 대체로 발음이 또렷하다. 실제 상남동 업장의 작은 룸은 비어 있을 때 0.5초를 넘는 경우가 흔한데, 커튼과 흡음재로 0.1초만 낮춰도 체감이 확 바뀐다.

마이크 선택과 운영, 보컬의 70%가 여기서 갈린다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고가 스피커보다 마이크 관리가 부족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다. 다이내믹 마이크가 기본 선택이지만, 콘덴서처럼 미세한 숨소리와 브레스가 살아나는 소리를 원한다면 슈퍼카디오이드 특성의 다이내믹 마이크나 저노이즈 콘덴서 마이크를 고려할 만하다. 다만 콘덴서는 룸 노이즈와 피드백 위험이 크다. 방이 작고 반사가 많은 상남동 일반 룸에서는 카디오이드 패턴의 다이내믹이 안전하다. 실제로 창원 가라오케 몇 군데에서 콘덴서를 시도했다가 에어컨 바람 소리와 손님 대화가 다 들어와서 중단한 사례를 봤다.

마이크 게인 설정은 입과의 거리 5에서 8cm를 기준으로 한다. 손님은 보통 10에서 15cm로 떨어뜨리고 부르기 때문에, 마이크의 근접 효과를 과하게 기대하지 말고 기본 게인을 조금 여유 있게 주고 컴프레서로 안정시키는 편이 좋다. 위생 커버를 씌우면 고역이 약 1에서 2 dB 깎이고, 피크가 미묘하게 줄어든다. 이 차이를 EQ로 8 kHz 부근을 1에서 2 dB 보정해 주면 [가음동 가라오케](#) 답답함이 줄어든다.

무선 마이크를 쓰는 업장은 배터리 상태에 따라 노이즈 게이트가 오작동해 어택이 잘리는 일이 있다. 저가 충전지를 쓰면 밤 11시 이후 고역이 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교체 주기를 시간 단위로 정해 두고, 게이트 스레시홀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다. 라이브 느낌을 살리려면 게이트보다 서브소닉 필터와 컴프레서가 더 중요하다.

프리앰프와 게인 스테이징, 소리의 그라데이션 만들기

입구에서 포화되면 뒤에서 아무리 손봐도 멍한 소리가 된다. 보컬 채널 입력 단계에서 피크가 노래의 강한 부분에 일시적으로만 노란색 범위로 들어오게 맞춘다. 아날로그 기준으로는 0 VU를 넘지 않게, 디지털 기준으로는 평균 레벨이 -18 dBFS, 피크가 -6 dBFS 근처에서 머무르게 한다. 그 다음 단계인 이펙터 리턴과 마스터 버스에서 각각 3에서 6 dB의 헤드룸을 남긴다. 이렇게 하면 손님이 부르다 갑자기 지르는 명곡동 스타일의 트로트 샤우팅도 버틴다.

상남동 가라오케에서 가수 출신 호스트가 자주 부르는 K팝 발라드를 기준으로 보면, 후렴 첫 마디에서 컴프레서의 GR이 3에서 5 dB 움직이고, 브리지에서는 1에서 2 dB로 살짝만 걸리는 정도가 이상적이다. 다이내믹을 살리면서도 과한 피크가 스피커를 때리지 않게 보호하는 셋업이다.

EQ, 보컬과 MR의 분리

라이브 느낌은 결국 분리감이다. MR은 이미 믹싱과 마스터링이 끝난 트랙이니, 중저역이 두껍고 고역이 화려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보컬이 埋되면 소리가 레코드 같아지고 사람 목소리의 결을 잃는다. 보컬 채널에서 120 Hz 이하를 하이패스로 정리하고, 250에서 400 Hz의 먹먹함을 2 dB 전후로 깎으면 호흡이 차오른다. 3 kHz에서 5 kHz를 1에서 2 dB 올려 자음 명료도를 세워 주되, s 발음이 거칠어지면 6에서 8 kHz에 넓은 Q로 1 dB만 눌러준다. 디에서를 과하게 쓰면 리버브가 건조해지고, 말맛이 사라진다.

반대로 MR은 200에서 [용호동 가라오케](#) 600 Hz 대역을 곡에 따라 1에서 2 dB만 살짝 눌러 보컬이 자리 잡을 여백을 만든다. 베이스가 두꺼운 힙합 트랙을 자주 부르는 중앙동 가라오케에서는 60에서 80 Hz를 -1에서 -2 dB 정리하고, 킥의 어택대 2에서 4 kHz를 1 dB 줄여 보컬과 충돌을 피했다. 중요한 건 과도한 손대기가 아니다. 작은 수치로도 무대가 생긴다.

컴프레서, 잘 쓰면 라이브, 과하면 라디오

보컬 컴프레서는 VCA 스타일이 다루기 쉽다. 어택을 15에서 30 ms, 릴리즈를 60에서 120 ms로 두면 초반 어택이 살아 있고 꼬리가 자연스럽다. 레시오는 3:1에서 시작해, 샤우팅이 많은 룸이면 4:1로 올린다. 항상 그래인을 보면서 귀로 결정해야 한다. 트로트나 파워 발성 손님이 많은 용호동 가라오케에서 5:1 이상으로 세팅했다가 모든 곡이 평평해졌던 적이 있다. 반대로 발라드 비중이 높은 가음동 업장에서는 2.5:1에 어택 25 ms, 릴리즈 80 ms가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버스 컴프레서를 무심코 걸어 전체를 눌러 버리는 실수가 잦다. 작은 룸에서는 마스터 버스에 컴프레서를 빼거나, 아주 가볍게 1에서 2 dB만 움직이게 두는 편이 목적함과 여유를 동시에 얻는다. 마스터 단계에서는 리미터가 안전망 역할만 해야 한다. 피크를 -1 dBFS 정도로 제한해 스피커 클리핑을 막고, 리미터가 항상 일을 하는 상황은 피한다.

리버브와 딜레이, 공간을 따로 만든다

라이브 느낌을 살리는 데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리버브다. 방 자체가 이미 울리는데 플레이트 리버브를 깊게 얹는 순간 단어 끝마다 꼬리가 떡진다. 작은 룸이면 프리딜레이를 20에서 40 ms로 설정해 원음이 먼저 오고 리버브가 뒤따르게 한다. 리버브 타입은 홀보다는 [중앙동 가라오케](#) 플레이트와 짧은 룸 리버브를 섞는 편이 안정적이다. 리버브 타임은 1.2에서 1.8초 범위가 무난하며, 저역을 200 Hz 이하의 리버브 입력단에서 컷한다. 고역도 8에서 10 kHz 위를 리버브 내에서 감쇠시켜 시이 소리가 번지지 않게 한다.

딜레이는 투명하게 쓰면 관객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보컬은 앞으로 튀어나온다. 1에서 2회 반복되는 슬랩백 딜레이를 80에서 120 ms로 두고, 피드백은 10에서 15% 내외, 믹스는 8에서 12% 정도가 출발점이다. 남성 발라드와 여성 가성에서는 값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여성 보컬에서는 100에서 120 ms가 단어 분리에 유리하다. 랩이 있는 곡에서는 딜레이를 완전히 끄고, 리버브를 짧게만 둔다.

스피커 배치와 크로스오버, 피드백과의 타협

상남동의 작은 룸은 좌우 폭이 2.2에서 2.8m, 길이가 3.5에서 4.5m 정도가 흔하다. 스피커를 모서리에 바짝 붙이면 80에서 120 Hz가 부풀고, 마이크가 스피커 축을 향할 확률이 높다. 트위터 축이 귀 높이보다 약간 위를 지나가게 걸고, 벽에서 20에서 30cm는 띄운다. 룸 모서리에는 가능한 흡음 또는 베이스 트랩 역할을 하는 가구를 배치하면, 100 Hz 전후의 붕붕거림이 2에서 3 dB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서브우퍼를 쓴다면 크로스오버는 90에서 110 Hz 사이에서 시작해 룸 모드와 보컬 충돌을 피한다. 라이브 느낌을 원하면서 서브를 70 Hz 아래로 깊게 내리는 세팅을 원하는 글을 보지만, 작은 룸에서는 저역 꼬리가 더 크게 문제를 만든다. 서브 게인은 메인 대비 -6 dB에서 -9 dB로 출발하고, 손님 취향 따라 밤 시간대에만 살짝 올린다. 하이패스는 메인에 80 Hz 근처에서 얇게 걸면 보컬 채널의 저역 정리에 유리하다.



마이크와 스피커 간 피드백은 지리적 문제다. 마이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주파수를 기억해 둔다. 상남동, 중앙동 업장에서 자주 튀는 대역은 250 Hz, 630 Hz, 1.25 kHz, 3.15 kHz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피크를 노치 EQ로 3에서 4 dB만 집어넣어 두고, 라이브로 찾는 방법을 직원에게 체화시켜야 한다. 자동 피드백 [창원 가라오케](#) 서프्रेस는 마지막 보험으로만 둔다. 과도하게 걸면 소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



룸 어쿠스틱,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확실한 영역

창원 가라오케 업장들을 다니며 가장 먼저 묻는 게 벽과 천장 마감재다. 인테리어 예산이 빠듯하면 조도 높은 LED와 거울을 먼저 고르고, 흡음은 장식처럼 덧붙이려 한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적일수록 어쿠스틱부터 해결해야 목소리가 산다. 벽면 두 군데만 직사 반사를 끊어도 리버브 노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작은 룸에서는 마이크가 향하는 전면 벽과 측면 첫 반사 지점에 흡음 패널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두께 25에서 50mm의 폴리에스터 흡음재만으로도 500 Hz 이상은 충분히 잡힌다. 저역은 책장이나 소파, 코너 선반 같은 대형 가구가 어느 정도 잡아준다. 천장에는 부분적으로 클라우드를 설치하면 2에서 4 kHz의 날카로움이 줄어들고, 마이크와 스피커의 상호작용이 완화된다. RT를 직접 재지 않아도, 제스처나 박수 소리가 한 번에 뚝 떨어지지 않고 두세 번 번지면 아직 과하다.

문제는 방음과 진동이다. 명곡동 같이 주거와 가까운 골목은 밤 10시 이후 소음 민원이 잦다. 저역을 깎아야 할까 고민하지만, 해결은 바닥 진동 절연에 가깝다. 고무 패드만 덧대는 임시방편보다, 스피커 브래킷의 벽체 고정과 우퍼의 디커플링 패드를 분리해서 다루자. 벽면 공진은 가구 배치로 완화되기도 한다. 실제로 가음동 한 매장은 스피커 뒤편 벽체가 석고 두 겹 구조였는데, 측면으로 40cm 옮기고 브래킷 대신 스탠드로 바꿨더니 125 Hz 피크가 4 dB 줄었다.

MR 소스와 플레이어, 변수가 적을수록 좋다

라이브 느낌은 소스의 일관성에서 시작한다. 파일 포맷이 섞이면 EQ가 흔들린다. 최소한 44.1 kHz, 16비트 이상의 WAV 또는 고품질 AAC로 통일하고, 플레이어의 라우드니스 노멀라이제이션 기능을 끈다. 스트리밍 MR을 쓰는 업장은 버퍼링과 레벨 편차가 심하다. 저녁 피크 시간에는 네트워크가 흔들려 딜레이가 생기고, 레벨이 큰 곡 다음에 작은 곡이 오면 마스터 페이더를 정신없이 만지게 된다.

플레이어 출력은 믹서의 라인 입력으로 받고, EQ와 컴프를 얇게 건 MR 버스를 따로 둔다. 곡마다 레벨이 2에서 3 dB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대신 하드 리미팅이 걸린 최신 MR과 구형 반주의 레벨 차이는 6 dB까지 벌어진다. 이 차이를 줄이려고 마스터를 억지로 끌어올리면 보컬 헤드룸이 먼저 무너진다. 운영 매뉴얼에 MR 버스 페이더 조정 범위를 정해 두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마이크 사용법 교육, 기술보다 빠른 효과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마이크를 입에서 20cm 이상 떼면 라이브 느낌은 사라진다. 매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한 줄 팁 카드만 테이블에 놓아도 개선된다. 마이크를 입 앞 5에서 8cm에 두고, 너무 큰 대목에서는 입을 살짝 비껴가게 한다. 손님이 노이즈를 줄이려 마이크 스위치를 자주 끄고 켜면 팝 노이즈가 난다. 스위치 대신 뮤트 회로가 있는 채널을 쓰거나, 볼륨 페이더로 운영하는 게 낫다. 마이크 커플링은 저역을 부풀리고 하이 미드를 죽이므로 가능한 피하도록 안내한다. 상남동 몇몇 업장은 벽면에 짤막한 그림 한 장으로 이걸 해결했다. 손님은 생각보다 쉽게 따라온다.

장르와 곡별 프리셋, 과학과 취향의 타협

모든 곡에 맞는 만능 프리셋은 없다. 그렇다고 곡마다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신 장르 두세 가지에 맞춘 프리셋을 만든다. K팝 발라드는 리버브 프리딜레이를 30 ms 정도로 길게, 리버브 타임은 1.6초 전후, 딜레이는 100 ms에 가볍게. 트로트는 리버브를 플레이트 중심에 1.4초 정도로 짧게, 중고역을 살려 발음을 또렷하게. 랩이나 댄스곡은 리버브보다 딜레이 타이밍 효과를 살리되, 믹스는 8% 이내로 투명하게. 이렇게 세 가지면 대부분 커버된다. 이때 중요한 건 프리셋 전환이 곡 시작 전에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자동화를 쓰면 좋지만, 실제로는 버튼 하나면 되는 스냅샷 구성이 더 안전하다.

직원 운영 루틴, 저녁 피크 시간에 무너지지 않게

현장에서는 좋은 세팅 자체보다 유지가 어렵다. 음압은 저녁 손님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테이블 대화가 커지면 손님은 자연스럽게 더 크게 부르고, 마이크 레벨을 올리자고 요구한다. 매장 운영 루틴을 만들자. 첫 손님 전, 피크 시간 전, 마감 전 3회 점검이 핵심이다. 피크 전 점검에서는 마스터 레벨을 기준 음압으로 맞추고, 스피커 보호 리미터 상태를 확인한다. 간단한 SPL 미터 앱으로 좌석 중앙에서 A 가중치 기준 84에서 88 dB 사이를 기준으로 잡아두면 과도한 소음 민원도 줄고, 피드백 여유도 생긴다.

예산 구간별 추천, 현실적인 업그레이드 순서

예산이 늘 충분하지는 않다. 바꾸는 순서가 중요하다. 마이크 두 대, 프리앰프나 채널 스트립 하나, 소형 디지털 믹서, 스피커와 간단한 룸 흡음. 이 넷이 선순환을 만든다. 특히 디지털 믹서를 들이면 프리셋 관리와 손님별 보정이 쉬워져 효율이 급격히 오른다. 반면 스피커만 고급으로 바꾸면 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작은 룸 1개 기준으로, 100만 원대 예산이라면 다이내믹 마이크 두 대, 디지털 믹서 엔트리, 기본 흡음 패널 몇 장이 유효하다. 300만 원대면 채널 스트립이나 마이크 프리 한 대를 추가하고, 스피커 스탠드와 디커플링을 정리한다. 500만 원을 넘기면 스피커와 서브를 룸 크기에 맞춰 리뉴얼하고, 벽과 천장 흡음을 체계적으로 한다. 장비의 브랜드보다 룸 보정의 비중을 끝까지 기억해 두자.

이웃과 민원, 저역 관리의 전략

창원은 상권과 주거가 맞닿은 구간이 많다. 특히 용호동, 가음동 골목은 야간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사람은 저역에 둔감하지만, 벽과 바닥은 저역에 민감하다. 문틈 차음, 벽 흡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실질적 대책은 세 가지다. 우퍼의 게인을 밤 11시 이후 자동으로 3 dB 내리는 타임드 썬, 스피커의 벽면 고정 대신 스탠드와 패드로 진동을 끊는 구조, 그리고 저역 하이패스 필터를 마스터 45에서 55 Hz에 얇게 걸어주는 운영. 실제 상남동 골목의 한 매장은 이 세 가지로 민원 빈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라이브 호흡을 살리는 디테일, 작은 차이가 모여 무대가 된다

라이브처럼 들린다는 피드백은 기술보다 디테일에서 온다. 노래 시작 전에 마이크 피드백 체크를 겸해 짧은 배경음을 살짝 틀고, 채널에서 리버브를 열어 둔 상태로 손님에게 한두 마디 말하도록 유도한다. 말소리에 어색함이 없으면 노래도 자연스럽게. 남성 손님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곡을 부를 때 120에서 180 Hz에 보컬 보강 EQ를 1 dB 정도 올려 주면 초입이 빈약하지 않다. 듀엣 곡에서는 두 마이크의 컴프레서 스레시홀드를 1 dB 차등해, 보컬이 겹칠 때 전체 레벨이 갑자기 튀지 않게 만든다.

또 하나, 키 변환이 잦은 업장은 MR의 저역 밸런스가 바뀌는 걸 감안해야 한다. 반주를 -2키 내리면 킥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줄고, 보컬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아진다. 반대로 +2키면 100에서 150 Hz 충돌이 생긴다. 키를 바꾼 다음 한 번만 MR 버스 EQ를 미세 보정하면 이후 한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사례 스케치, 동네별로 달랐던 해결책

상남동 가라오케 A는 룸 벽면이 전면 유리 코팅 패널이었다. 반사가 심해 리버브를 2초 가까이 써야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측면 첫 반사 지점 두 곳에 50 mm 흡음재 패널을 붙이고, 리버브를 1.5초로 줄이자 발라드에서 가사가 깨끗하게 박혔다. 컴프레서를 3:1에서 2.5:1로 완화한 것이 결정타였다.

용호동 B는 서브우퍼가 벽을 울려 민원이 잦았다. 우퍼를 코너에서 벗겨 중간 벽 3분의 1 지점으로 이동하고, 위에 3 cm 고무 패드와 MDF 보드를 샌드위치로 덧댔다. 크로스오버를 100 Hz에서 90 Hz로 내리고 게인을 -3 dB 하향. 체감 저역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벽 뒤 진동이 줄면서 클레임이 멈췄다.

중앙동 C는 랩 곡 비중이 높아 딜레이와 리버브가 늘 문제였다. 딜레이를 완전히 끄고, 리버브 프리딜레이를 35 ms로, 리버브 타임을 1.2초로 세팅. 대신 MR 버스에서 2 kHz를 1 dB 떨어 내 랩 자음이 뜨지 않게 했다. 결과는 단단한 전면감. 손님 반응이 빨랐다.

명곡동 D는 트로트 비중이 높아 고역이 날카롭다는 불만이 있었다. 마이크에 디에서를 강하게 걸던 것을 풀고, 보컬 EQ에서 3.5 kHz를 1 dB 내리는 대신 1 kHz를 1 dB 올려 중역 존재감을 확보했다. 리버브를 플레이트로 바꾸고 타임을 1.3초로 짧게. 호흡 소리가 살아나면서도 자극이 줄었다.

가음동 E는 장비가 좋았지만 운영이 들쭉날쭉했다. 디지털 믹서 씬을 장르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피크 시간 전에 SPL을 86 dBA로 맞추는 루틴을 팀에게 교육. 마이크 배터리 교체 시간을 2시간 주기 타이머로 관리하게 바꿨다. 한 달 뒤 재방문율이 눈에 띄게 올랐다.

라이브 느낌을 위한 베이직 세팅 순서

- 1) 보컬 마이크 게인 설정, 평균 노래 레벨에서 피크가 -6 dBFS 근처에 오도록
- 2) 보컬 하이패스 100에서 120 Hz, 250에서 400 Hz 살짝 정리, 3에서 5 kHz 약간 부스트
- 3) 컴프레서 3:1, 어택 20 ms, 릴리즈 80 ms에서 시작, GR 3에서 5 dB 목표
- 4) 리버브 프리딜레이 25에서 35 ms, 타임 1.4에서 1.6초, 리버브 입력 저역 컷
- 5) MR 버스에서 300 Hz 전후 1 dB 정리, 마스터 리미터 피크 -1 dBFS 설정

운영 중 흔한 문제와 빠른 점검 포인트

- 소리가 탁해짐, 마이크 위생 커버 고역 손실과 배터리 상태 확인
- 피드백 발생, 스피커 축과 마이크 각도 재조정, 문제 대역 노치 EQ 2에서 3 dB
- 노래 따라 레벨 들쭉, MR 버스 페이더로 2에서 3 dB 범위 내 보정, 마스터 고정
- 리버브가 번짐, 프리딜레이를 늘리고 리버브 입력 저역 컷 강화
- 저녁에 민원 증가, 서브 게인 타임드 씬 -3 dB, 마스터 하이패스 50 Hz 근처 추가

마이크 두 대의 밸런스, 듀엣과 호응

듀엣에서는 두 사람의 발성 차이가 귀에 날카롭게 들어온다. 성량이 큰 쪽은 컴프레서 스레시홀드를 1 dB 낮추고, 어택을 5 ms 더 빠르게 하면 합창 구간이 깨끗해진다. 리버브는 두 채널에서 같은 버스로 보내되, 센드를 살짝 다르게 하는 게 포인트다. 음정이 흔들리는 손님은 리버브 10에서 15%를 더 보내면 안정감이 늘어난다. 반대로 안정된 보컬은 리버브를 줄이고 딜레이를 살짝 더해 존재감을 뽐낸다. 마이크 간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각자 스피커 축에 정면으로 서지 않도록 자리도 가볍게 안내한다.

직원의 귀를 민게 만드는 간단한 훈련

장비 수치보다 귀의 판단이 먼저다. 매장 오픈 전 5분 루틴으로 같은 세 곡을 들어 보자. 발라드, 트로트, 댄스 한 곡씩. 포인트는 세 가지다. 말소리가 자연스러운지, 자음이 튀지 않는지, 저역이 테이블을 울리지 않는지. 직원에게 특정 대역을 언어로 매칭시키는 훈련을 시키면 더 빠르다. 예를 들어 300 Hz가 붕붕거린다, 라고 느끼면 보컬에서 2 dB 컷. 6 kHz가 시끄럽다, 라고 느끼면 디에서 세기보다는 보컬 EQ 6에서 8 kHz에 1 dB 컷. 이런 방식으로 가이드를 적어두면 교대가 잦아도 매장 음색이 유지된다.

현장의 변수, 그래도 재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상남동의 토요일 오후는 가벼운 모임이 많고, 밤 11시 이후는 단체 회식이 몰린다. 상권 리듬에 따라 음압과 세팅 스트레스가 달라진다. 재현 가능한 시스템은 견고한 기본값과 작은 가변폭으로 만든다. 마이크 계인과 컴프레서, 리버브 기본값을 고정하고, 변동은 MR 버스 페이더와 리버브 센드에서만 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누구나 80점은 낸다. 100점을 욕심내면 오히려 흔들린다. 라이브 느낌은 과감한 변화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생긴다.

한 줄로 요약되는 판단 기준

귀가 피곤하지 않은 소리, 말이 잘 들리는 소리, 샤우팅을 견디는 소리. 이 세 가지에 맞추면 라이브처럼 들린다. 장비가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상남동 가라오케, 중앙동과 용호동, 명곡동과 가음동에 걸쳐 본 결과, 성공한 매장은 공통적으로 룸의 울림을 먼저 다듬고, 보컬이 앞으로 나오는 세팅을 지켰다. 그리고 직원이 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오늘 밤에도 마이크는 손을 타고, 기대는 높다. 준비된 룸과 세팅은 그 기대를 무대처럼 바꾼다.